

# 학교폭력으로 인한 두려움이 청소년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지역 일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 The Effects on Juvenile Response about Fear of School Violence

김상운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Sang Woon Kim(ksw48@naver.com)

### 요약

사회가 발전해 감에 따라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비행도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다. 최근 발생하는 청소년들의 비행은 잔인화·흉폭화·심각화됨으로 인하여 주변의 청소년들은 비행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특히, 폭력의 경우 청소년이 받게 되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폭력비행에 의한 두려움은 피해청소년 및 주변청소년에게 신체적 피해 뿐 만 아니라 심각한 형태의 정신적 피해를 준다고 많은 선행연구에서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두려움이 피해 청소년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학교폭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두려움은 직·간접적인 피해경험과 교내·외 무질서로 설정하였으며, 비행으로 인한 두려움의 반응은 회피적 행위·방어적 행위로 설정하여 대구지역의 일반 남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가설을 검증한 결과, 학교폭력에 대한 두려움에서 간접적인 피해경험은 방어적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접적인 피해경험은 회피적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학교폭력 | 폭력에 대한 두려움 | 방어적 행위 | 회피적 행위 |

### Abstract

Delinquency young people committed society as evolves is also increasing rapidly. Juvenile delinquency that occurred recently is serious. As a result, young people are feeling fear of delinquency. Fear of delinquency young people feel, a major impact on the personality development of the youth of the period of growth. In particular, the violent delinquency, to give a physical impact, damage youth receives is large. As well as physical damage to people in and around the juvenile victims, given the damage mental serious form, fear violent delinquency has been shown in many previous studies. Therefore, in this study you have the purpose to study the effects on the reaction of juvenile victims for fear of delinquency caused by the delinquency of violence. Set randomly on campus and external experience and damage directly or indirectly, are classified into action evasive action·defensive reaction of fear by delinquency, factors that affect the risk caused by violent delinquency, Daegu after conducting a survey of high school students in general in the areas in which we tested the hypothesis. As a result of the verification, exerting a significant influence in order to act defensive becomes clear, experience of direct damage and experience of damage indirect fear of delinquency, avoided experience of direct damage it was found to exert a significant effect on to the action manner.

■ keyword : | School Violence | Fear of Violence | Defensive Behavior | Avoidance Behavior |

## 1. 서론

최근 들어 청소년 비행은 성인범죄 못지않게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 비행의 특성은 지능화·잔인화·과격화 되어 과거에 비해 그 심각성이 증대됨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거나, 피해를 목격한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두려움 역시 증가하고 있다.

비행에 대한 두려움은 주변 청소년들이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성인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학교에서 발생하는 비행행위들은 주변 친구들에게 그대로 때문에, 비행을 저지른 학생 이외에 주변 친구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듯 청소년비행에 대한 피해는 일반적인 범죄의 피해와 비교했을 때 영향력은 더 크다. 청소년 전기의 또래집단 경험은 성인기 집단 활동의 전초적 경험이라 볼 수 있다. 또래 집단의 경험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집단의 조직을 평가하고 조직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평가하는 기술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기술은 후에 사회적 집단 내에서의 기능에 대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1].

이러한 비행에 대한 경험은 비행에 대한 두려움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두려움은 인간이 성장하면서 사회화를 통해 얻게 되는 중요한 감정의 하나이며, 어떤 대상을 무서워하는데 발생한다[2].

특히, 비행에 대한 두려움은 일반인들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개인이 직·간접적인 경험이나 주변의 무질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것에 대한 불안의 정서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비행에 대한 두려움 중에서도 학교폭력에 의한 두려움의 발생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측된다. 청소년에게 학교폭력에 의한 두려움의 발생은 학교생활이 위축되도록 하며 친구관계에도 편협한 교우관계가 형성될 것이고 이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도 하며, 심할 경우 우울·불안·위기 등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 질병을 발병시키고, 다른 비행을 저지르거나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렇듯 비행으로 인하여 많은 청소년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구에서는 폭력비행 특히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두려움이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많은 선행연구의 경우 전국적으로 실시된 설문을 바탕으로 연구되어 지역적인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연구에서는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인문계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하여 관련 선행연구 및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통계, 관련 자료를 문헌연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인문계 남자 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통계패키지 PASW Statistics 18.0을 활용하여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설문에 응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 II. 이론적 배경

### 1. 학교폭력의 의미

학교폭력은 학교주변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매우 큰 형태의 비행이다. 이러한 학교폭력에 대해서 폭력의 장소, 폭력의 주체, 폭력행위 등에 따라 학자별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정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교주변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학교폭력이라고 정의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정의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内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라고 정의하였다.

다시 말해, 학교주변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때리는 행위, 말 또는 문로 협박하는 행위, 특정 장소에 학생을 가두거나 행동을 제한하는 행위, 주변 학생들에게 욕을 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어울리지 못하도록 조장하는 하는 행위, 인터넷 및 휴대폰 등으로 성적인 내용이나 폭력적인 내용을 보내는 행위 등을 통하여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정의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을 ‘일반적으로 학교나 학교주변에서 학생 상호 간에 발생하는 의도성을 가진 신체적·정서적 가해행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으며, 권이중(2005)은 학교폭력을 ‘자기보다 약한 처지에 있는 상대에게 불특정 다수의 학생이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체적·심리적 고역을 가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상원과 이승철(2006)의 연구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 상호 간에 의도성을 가진 반복적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물리적·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학교폭력을 정의하였다[3].

이렇듯 학교폭력은 학자별로도 상황별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사회가 변화하듯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역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과거의 선행연구에서 정의하였던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학생들의 유행을 감안하여 학교폭력을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적인 형태의 행위로서, 물리적 행위 및 정신적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대면하거나 비대면하는 것과 상관없이 상대 청소년에게 물리적·정신적·금전적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한다.

## 2. 학교폭력의 영향

청소년비행은 주변 청소년에게 큰 피해를 미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청소년의 비행행위 중 폭력에 의한 비행행위는 주변 청소년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주변 청소년들에게 폭력적인 성향의 비행을 전염시키기도 한다.

특히, 폭력비행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갈수록 흥

포화 저 연령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폭력피해자들은 심각한 무기력감, 우울,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교 부적응문제를 겪게 되고, 이러한 심리적 불균형은 성인기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4].

특히,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학교생활에서 점점 더 고립되게 할 수 있다. Sharp와 Smith의 연구(1994)에서도 피해학생은 자신감과 자아 존중감을 잃고 이로 인해 집중력과 학습능력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는 복통, 두통을 호소하며 악몽이나 공격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며 등교 기피와 안전한 자신의 집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증상까지 지속됨으로써 성인기의 사회적 적응에 까지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5].

송동호의 연구(1997)에서는 학교폭력에 노출된 기간에 따라 사회생활과 학교생활의 적응에 차이가 났다. 즉, 학교폭력에의 노출시간이 짧은 학생집단은 폭력을 경험하기 전과 같은 적응을 할 수 있었으나 학교폭력의 노출 기간이 길었던 학생집단은 학교부적이 심각해서 전학과 해외유학을 택하거나 학업을 중단했다[6].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은 폭력을 당한 경험들이 자꾸 떠올라 집중력이 떨어져 학업성적이 떨어지고[7], 자국이 잦아지면서 이사나 전학을 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하게 되고, 더욱 심각해지면 등교거부나 가출·자살로 이어지는 등 학교폭력피해경험은 청소년에게 신체적 고통은 물론 심리적 외상을 남겨 심각한 학교 부적응 상태를 초래한다[8].

학교폭력 피해청소년들은 또래집단과 긍정적인 교우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소외되며,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이나 일반청소년에 비해 교사들과의 관계, 교우관계, 학업에 있어서 높은 스트레스로 인해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9].

청소년기는 다양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시기에 경험은 인격형성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애발달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심각한 무기력감, 우울,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교부적응의 문제를 야기하고, 이러한 심리적 불균형이 성인기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10].

### III. 가설의 설정과 분석방법

#### 1. 연구방법과 연구모형

이 연구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로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민감한 시기의 청소년에게 미치는 학교폭력의 유해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문헌 및 통계자료 등과 같은 이론적 배경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실시되었으며, 이론적 배경을 통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의되어진 내용을 조작적 정의를 실시하여 만들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청소년의 성향과 측정상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를 학교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설정하였고, 종속변수는 학교폭력으로 발생한 두려움의 반응으로 설정하였다. 학교폭력행위를 상해, 폭행, 협박, 공갈, 따돌림, 감금 등으로 제한하였다.

독립변수로 사용된 학교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김연수의 연구(2010)와 라광현의 연구(2012)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학교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직접적인 경험에 의한 두려움, 간접적인 경험에 의한 두려움, 교내무질서, 교외무질서로 나누어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로 사용된 청소년의 반응은 김연수의 연구(2010)에서 사용된 범죄두려움에 대한 반응을 참고하여 방어적 행위, 회피적 행위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진 설문지는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여 대구지역 일반남자고등학생에게 배포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500부를 배포하였으며, 이중 설문내용이 부실하거나, 내용의 진실성이 보이지 않는 설문지 37부를 제거한 463부의 설문

지를 회수하여 자료화 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PASW Statistics 18.0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Reliability)와 타당도(Factor)를 분석하기 위하여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과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느끼는 범죄두려움에 의한 반응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05$ ,  $p<.01$ ,  $p<.001$ 에서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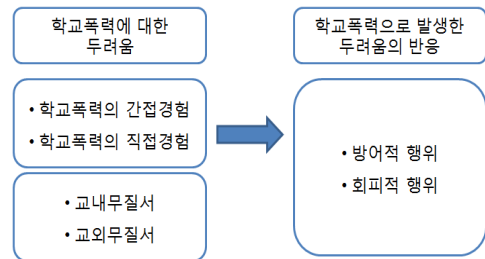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 2. 가설의 설정

가설 1. 학교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방어적 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학교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회피적 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IV. 분석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 연구에서는 대구지역의 일반고등학교에 다니는 남자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에 참여한 남자고등학생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17세의 청소년은 147명으로 전체의 31.7%에 해당하였으며,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18세의 청소년은 215명으로 전체 연

구 참여자 중 46.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9세의 청소년은 101명으로 21.8%를 차지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적 수준을 살펴본 결과, 자신의 성적이 '최하'라고 표기한 학생은 14명이었고, '하'라고 표기한 청소년은 65명이었으며, '중간'이라고 표기한 청소년은 239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자신의 성적이 '상'이라고 설문지에 기재한 청소년은 104명이었고, '최상'이라고 표기한 청소년은 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고등학생의 가정소득 수준을 자기기입식 설문을 통해 살펴본 결과, '하'라고 기입한 청소년은 31명(6.7%)이었고, '중'이라고 기입한 청소년은 300명(64.8%)이었으며, '상'이라고 기입한 청소년은 112명(24.2%), '최상'이라고 기입한 청소년은 20명(4.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빈도(명)	비율(%)
나이	17세	147	31.7
	18세	215	46.4
	19세	101	21.8
학업성적 수준	최하	14	3.0
	하	65	14.0
	중	239	51.6
	상	104	22.5
	최상	41	8.9
가정소득 수준	하	31	6.7
	중	300	64.8
	상	112	24.2
	최상	20	4.3
출생순서	첫째	248	53.6
	둘째	123	26.6
	막내	88	19.0
	기타	4	.9
가족의 규모	2명 이하	21	4.5
	3명	38	8.2
	4명	321	69.3
	5명	76	16.4
	6명 이상	7	1.5
부모님과 동거여부	아버지	14	3.0
	어머니	41	8.9
	부모님 모두	408	88.1
합계		463	100.0

설문에 참여한 고등학생의 출생순서에 대한 질문에서 '첫째'로 태어난 청소년은 248명(53.6%), '둘째'로 태어난 청소년은 123명(26.6%)이었다. 3명 이상의 형제를

가진 청소년 중에서 '막내'는 88명(19%), 기타의 출생순서를 가진 청소년은 4명(0.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설문에 참여한 고등학생의 가족의 규모에 대한 질문에서 '2명 이하'의 가족의 규모를 가진 청소년은 21명(4.5%), '3명'의 가족 수를 가진 청소년은 38명(8.2%), '4명'의 가족 수를 가진 청소년은 가장 많은 321명(69.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5명'의 가족을 가진 청소년은 76명(16.4%), '6명'이상의 대가족을 가진 청소년은 7명(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부모님과 동거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 '아버지'와 동거하는 청소년은 14명(3%), '어머니'와 동거하는 청소년은 41명(8.9%)이었으며, '부모님 모두' 동거하는 청소년은 408명(88.1%)으로 나타났다.

## 2.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이 연구에서는 관련된 변수를 축소, 압축하여 의미 있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요인을 회전하는 방법에는 직각회전 방법(orthogonal rotation)을 이용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사용상의 편리성과 해석상의 용이성을 위해 베리맥스 회전(varimax rotation) 방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추출은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변수의 요인 적재값(Factor loading)은 일반적으로 수용기준이 보통 ±.30이상이면 유의하다고 본다.

이 연구는 요인분석을 통해 고유값이 1이상 되는 요인의 개수를 파악하고, 요인 적재치가 .50이상이 되는 문항을 포함하는 반면, 요인 적재치가 .30이하인 문항을 제거하고, 고유값이 1이상인 요인에 중복 적재된 문항을 제거하였다.

이 연구 사용된 측정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적재치가 0.4 미만의 문항은 제거하였다. 제거된 문항을 각 분류별로 살펴보면 독립변수로 사용된 폭력비행의 간접적 경험에 대한 총 5개 문항 중 2개 문항을 제거하였고, 학교폭력의 직접적 경험에 대한 총 5개 문항 중 2개 문항을 제거하였다. 교내무질서에서 사용된 총 5개 문항 중 2개 문항을 제거하였고, 교외무질서에서 사용된 총 5개 문항 중 2개 문항을 제거하였다.

표 2. 측정도구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분류			요인적재치	신뢰도
폭력비행에 대한 두려움	폭력비행에 대한 간접경험	폭력비행 목격빈도	.641	.860
		폭력비행 목격정도	.770	
		폭력비행 목격두려움	.745	
	폭력비행에 대한 직접경험	폭력피해빈도	.799	.875
		폭력피해정도	.871	
		폭력피해두려움	.811	
	교내무질서	교내무질서1	.821	.700
		교내무질서2	.833	
		교내무질서3	.689	
	교외무질서	교외무질서1	.582	.665
		교외무질서4	.805	
		교외무질서5	.811	
비행두려움의 반응	회피적 행위	상담욕구1	.936	.822
		상담욕구2	.941	
		상담욕구3	.899	
		도피욕구1	.886	
		도피욕구2	.929	
	방어적 행위	대응정도	.687	.842
		스트레스정도	.604	
		호신욕구1	.684	
		호신욕구2	.505	
		호신욕구3	.491	
		방어욕구	.736	

종속변수로 사용된 방어적 행위에 대한 문항 총 9개 문항 중 2개 문항을 제거하였고, 회피적 행위에 대한 문항 총 9개 문항 중 4개 문항을 제거하였다.

### 3. 가설의 검증

#### 3.1 가설 1의 검증

가설 1. 학교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방어적 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3. 학교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방어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β		
(상수)	1.298	.175		7.428	.000
폭력간접경험	.211	.070	.173	3.014	.003***
폭력직접경험	.163	.066	.136	2.472	.014*
교내무질서수준	.018	.035	.024	.522	.602
교외무질서수준	.052	.042	.059	1.228	.220

R2= .087 F=10.962

\* p < .05, \*\* p < .01 \*\*\* p < .005

가설 1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두려움이 피해 학생의 방어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학교폭력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학생은 유의확률 .003(β=.173, t=3.014)으로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폭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학생은 유의확률 .014(β=.136, t=2.472)로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내무질서 수준이 방어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의확률이 .602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외무질서 수준이 방어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 역시 유의확률 .220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은 설명력이 8.7%에 불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로 사용된 학교폭력에 대한 간접경험과 직접경험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구지역 일반 고등학생의 학교폭력에 대한 간접적 경험과 직접적 경험으로 발생한 두려움은 방어적 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구지역 일반 고등학생은 무질서와 같은 외부적인 영향보다는 경험과 같은 직접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2 가설 2의 검증

가설 2. 학교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회피적 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4. 학교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회피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β		
(상수)	.920	.216		4.252	.000
폭력간접경험	.145	.087	.095	1.668	.096
폭력직접경험	.360	.082	.242	4.408	.000***
교내무질서수준	.068	.043	.072	1.570	.117
교외무질서수준	.025	.052	.023	.486	.627

R2= .094 F=11.831

\* p < .05, \*\* p < .01 \*\*\* p < .005

가설 2는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두려움이 피해

학생의 회피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교폭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요인으로서 유의확률 .000( $\beta=.242$ ,  $t=4.408$ )으로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두려움이 회피적 행위에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학교폭력에 간접적인 경험을 한 요인과 교내무질서, 교외무질서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에 간접적이 경험을 한 요인의 경우 .096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내무질서 수준이 방어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의확률이 .602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외무질서 수준이 방어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 역시 유의확률 .220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는 설명력이 9.4%에 불과하여 높은 설명력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독립변수로 사용된 학교폭력에 대한 직접경험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구지역 일반 고등학생의 학교폭력에 대한 직접적 경험으로 발생한 두려움은 회피적 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최근 들어 청소년 비행은 성인범죄 못지않게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 비행의 특성은 지능화·잔인화·과격화 되어 과거에 비해 그 심각성이 증대됨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거나, 피해를 목격한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두려움 역시 증가하고 있다.

비행에 대한 두려움은 주변 청소년들이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성인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학교에서 발생하는 비행행위들은 주변 친구들에게 그대로 때문에, 비행을 저지른 학생 이외에 주변 친구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불안·우울과 같은 내면적인 증상과 공격성, 비행과 같은 외현화된 문제행동을 야기하기도 한다.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들이 겪는 심리적 문제는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우울, 외로움, 공포, 분노, 낮은 자신감,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생활 만족감 등이 있으며, 수면장애와 악몽에 시달리기도 한다[11].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학교활동 기피와 정신적·행동적인 문제는 학교에서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12].

Brockenbrough 등의 연구(2002)에서 괴롭힘(bullying)을 겪은 피해학생들의 1/3이 공격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했다[13].

이렇듯 청소년의 학교폭력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청소년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구지역 일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결과,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두려움이 피해학생의 방어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경험과 직접경험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두려움이 피해학생의 회피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폭력에 대한 직접적 경험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 일반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에 의한 두려움보다는 직접적인 영향에 의한 두려움이 반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폭력행위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한다.

많은 연구에서 제안하였듯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들만의 폭력문화를 제거하고, 폭력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제거해야 한다. 청소년의 경우 합리적 판단력이 성인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폭력적인 그들만의 문화를 제거하고자 하는 활동을 학교, 당국 및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및 사회적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이은희, 김남숙, “학교폭력피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Vol.13, No.4, pp.71-89, 2011.

[2] 윤희중, “도농복합지역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대인관계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경찰학논총, Vol.7, No.1, pp.157-183, 2012.

[3] 이상원, 이승철, “학교폭력 현황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8, pp.2-32, 2006.

[4] 이은희, 김남숙, “학교폭력피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Vol.13, No.4, pp.71-89, 2011.

[5] 이은희, 김남숙, “학교폭력피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Vol.13, No.4, pp.71-89, 2011.

[6] 이은희, 김남숙, “학교폭력피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Vol.13, No.4, pp.71-89, 2011.

[7] 이은희, 김남숙, “학교폭력피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Vol.13, No.4, pp.71-89, 2011.

[8] 이은희, 김남숙, “학교폭력피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Vol.13, No.4, pp.71-89, 2011.

[9] 김재엽, 장용언, 민지아,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Vol.18, No.7, pp.209-234, 2011.

[10] 김재엽, 장용언, 민지아,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Vol.18, No.7, pp.209-234, 2011.

[11] 김재엽, 장용언, 민지아,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Vol.18, No.7, pp.209-234, 2011.

[12] S. Mrug and M. Windle, Bidirectional Influences of Violence Exposure and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Externalizing Behaviors

and School Connectednes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Vol.37, No.5, pp.611-623, 2009.

[13] 김재엽, 장용언, 민지아,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Vol.18, No.7, pp.209-234, 2011.

저 자 소 개

김 상 운(Sang-Woon Kim)

정회원



- 2012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경찰학박사)
- 2012년 9월 ~ 현재 :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관심분야> :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